

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실시



강릉지부(지부장 최홍섭)는 '2006년도 독거노인 및 국민 기초 생계곤란 가정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' 봉사활동을 강릉지부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봉사활동은 강릉지부 포남1동 주공아파트 소재 국민기초 생계곤란 가정으로 방바닥 XL코일, (난방)배관 및 미장, 냉 온수, 수도 배관공사 및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.

이와함께 포남1동 서일아파트에 방 배관 누수 보수공사 및 배란다 누수 방수 공사를 설치 보수해 그동안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줬다.

최홍섭 지부장은 봉사활동에 앞서 "강릉시의 요청과 지부의 연례 행사로 해마다 겨울철을 대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난방 기술을 발휘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."며 "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."고 말했다.

김용기 총무도 "서민들이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잠자리를 점검 보수 해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."며 시간 있을 때 마다 수시로 난방 점검을 실시하기로 다짐했다.

